

# 설명자료

배포일시	2020. 2. 3.(월) 16:30 (총 3매)	보도시점	즉 시
담당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병준 예보팀장 이미경
		전화번호	053-956-0365

## 5~6일 강추위

- 4~5일 아침 최저기온 경북내륙 영하 10도 내외
  - 일부 지역 이번 겨울 들어 기온 가장 낮을 가능성, 추위 대비
  - 이번 주말부터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 회복
- 4일 밤~5일 새벽 경북서부내륙 눈



[ 2월 4일 밤~5일 아침 ]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 모식도

## [ 추위 전망 ]

- 5일(수)부터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우리나라는 차가운 북서풍이 불어들어 전국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, 6일(목)까지 강한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- 지상 부근으로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는 가운데, 대기 상공 5km 부근의 영하 30도 이하의 찬 공기까지 남하하면서 5일 아침 최저기온이 대구 영하 5도, 안동 영하 8도, 김천 영하 10도 등 주로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.
- 또한 바람이 시속 10~15km(초속 3~4m)로 다소 불어 체감온도는 4~7도 더욱 낮아지겠으니 건강관리와 수도관 동파 등, 한파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4일밤~5일 새벽 경북서부내륙에 눈이 예상되는 가운데, 눈이 그치고 난 후,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빙판길이 예상되니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.
- 이번 추위는 7일(금)까지 이어진 후, 점차 대륙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는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6도 이상 오르는 등,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아 점차 포근해지겠습니다.

## [ 강수 전망 ]

- 한편, 4일은 대륙고기압에 동반된 찬 공기와 이동성고기압을 따라 유입되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공기가 발해만 부근에서 충돌하여 눈구름이 만들어진 후, 점차 우리나라로 접근하면서 4일 밤~5일 새벽에 영향을 주겠습니다.
- 4일 밤(21시) ~ 5일 새벽(03시)에 경북서부내륙에 눈이 내리겠으며, 울릉도·독도는 4일 밤(21시)부터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5일 아침(03시)에 눈으로 바뀌겠습니다.
- \* 예상 강수량(4일 밤(21시) ~ 5일)
  - 경북서부내륙, 울릉도·독도: 5mm 미만
- \* 예상 적설(4일 밤(21시) ~ 5일)
  - 경북서부내륙, 울릉도·독도: 1~5cm

## [ 강풍 및 풍랑 전망 ]

- (강풍) 4일 오후~5일에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시속 30~45km(초속 8~13m)의 강한 바람, 경북내륙에서는 시속 15~30km(초속 4~9m)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,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기 바랍니다.
- (풍랑) 현재 동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, 5~6일에는 바람이 35~60km/h(10~16m/s)로 점차 강해지겠고 물결도 동해남부해상에 2.0~4.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,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기 바랍니다.